한·미 FTA 재협상론 논란

커틀러 "노동·환경 등 일부 재협상할 수도"

당국자 "더이상 추가 협상 절대 불가" 쐐기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재협상 또는 추가협상론이 미국측에서 갑자기 불거져 나온 데 대해 한미 양국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협상비준과 국회동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협상대표는 11일 양측간 타결된 합의내용 중 일부가 미 의회와 행정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등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추가협상은 있을 수 없다"며 쐐기를 박고 나섰다.

커틀러 대표는 이날 워싱턴 헤리티지재단 주최 토론회에서 "노동과, 혹은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도 미 행정부와 의회 간에 협상이 진행 중이고 한국측에도 이런 협의사실을 알렸다"면서 "이 같은 협의가 마무리되면 한국측과 향후 최선의 진전 방안을 모색할 입장에 놓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론회 후 재협상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미 의회와 행정부가 노동조항 및 다른 FTA 관련 조항들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런 협의들이 끝나면 향후 방안을 한국측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미 의회와 행정부 간의 협의에서 한미 FTA 합의사항 중 일부 수정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국측에 이에 따른 협상을 요구할 방침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커틀러 대표는 미 의회와 행정부간 협의 대상을 '노동 및 다른 FTA 관련 조항들(labor provisions and possibly other provisions with respect to FTA)'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진석 추기경을 예방하고 나온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는 재협상을 안 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송민순 외교부장관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미국측에서 정부와 의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노동, 환경 분야의 추가협상을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협상 타결 이후 더이상 추가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측에 분명히 밝혀뒀다"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커틀러 협상대표의 발언에 대해 "미국측이 한미 FTA를 체결해놓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도 의문이고 (문제를) 제기해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日, 위안부 강제 동원 입증 문서 발견

정진성 서울대 교수팀 네덜란드 기밀문서 공개

12일 오후 서울대학교 본관에서 사회학과 정진성 교수가 일본군이 강제로 위안부를 끌고간 사실을 보여주는 내용이 담긴 '네덜란드 정부기록물보존소 문서'를 확보, 이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증명하는 문서가 발견됐다.

정진성 서울대 교수(사회학) 연구팀은 12일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이 기록된 네덜란드 정부기록물 보존소의 기밀 문서를 공개했다.

이는 교도(共同)통신이 11일 인도네시아에서 위안소를 운영하던 일본인이 전후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전범재판 과정에서 '군부의 지시에 따라 민간 위안소를 설치했다'고 증언한 내용이 발견됐다고 보도한 데 이은 것이다.

그동안 일본군이 군 위안소의 설립 계획·동원·경영 등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문서는 여러 차례 발견된 바 있으나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입증하는 자료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연구팀이 공개한 문서인 '일본 해군 점령기 네덜란드령 동인도 서보르네오에서 발생한 강제 매춘에 관한 보고서'에는 당시 일본 특별해군 헌병대가 거리에서 여성들을 잡아들여 강제로 신체 검사를 한 뒤 위안소에 수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군 전용 3개소와 민간용 5~6개소로 세워져 엄격하게 격리·통제된 위안소는 위안부 여성 가족에 대한 '연좌제'까지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교수는 "네덜란드군 정보장교 명의로 돼있는 이번 보고서는 전후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서 열린 전범재판에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위안부 강제 동원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하는 증거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中 총리 "태극권은 이렇게"

방일중인 원자바오(溫家寶) 중국총리가 12일 아침 도쿄의 한 공원에서 주민들과 태극권 연습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美 제안 BDA 해법 北, 일체 반응 없어"

힐 차관보 밝혀

북핵 6자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2일 미측이 제안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법에 대해 북한이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정오께 시내 조선호텔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의 오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공식 루트로나 사적 채널로나 양쪽 모두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재확인했다.

뒤이어 호텔에 도착한 천 본부장은 BDA 문제 진전 여부에 대해 "달라진게 아무 것도 없으며 평가할 만한 새로운 진전 사항이 없다"고 밝히고 BDA 자금인출을 위해 20여명의 북한측 인사들이 마카오에 와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마카오에 (북한의) 누가 가 있는지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빨리 움직여야 한다"면서 "빨리 돈을 찾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빨리 '2.13 합의' 초기 조치인 영변 핵시설 폐쇄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소림사, 톈진에 200억원대 절 짓는다

소림사가 앞으로 10년에 걸쳐 1억6천만위안(208억원)의 거액을 들여 중국 톈진(天津)시에 세계적인 대사찰을 짓는다.

중국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12일 스융신(釋永信) 소림사 주지의 말을 인용해 소림사가 톈진시와 공동으로 북소림사 재건공사를 한다고 보도했다.

스융신 주지는 "북소림사는 쑹산(嵩山)에 있는 소림사의 분원"이라면서 "이 절은 쑹산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북소림사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8년에서 10년의 시간을 두고 북소림사 재건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북소림사를 세계적인 명사찰로 재단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톈진시 판산(盤山)에 자리잡고 있는 북소림사는 원래 원(元), 명(明), 청(淸)조 때부터 있었으며 특히 원나라 시절 황제로부터 국사로 봉해지기도 했다.

北 내각총리에 김영일 전격 발탁

배수리공장·컨테이너 부두 완공 등 고려 된 듯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1기 5차 회의에서 내각 총리를 '깜짝 교체'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전임 박봉주 총리의 경질은 예고됐던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200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회의에서 총리에 임명된 박 전 총리는 농업자금의 유류구입자금 전용 등으로 검열을 받으면서 작년 6월부터 공식활동을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북한의 내각 총리 인사에서 눈길을 모으는 것은 신임 김영일 내각 총리(사진)의 임명 배경이다.

신임 김영일 총리는 해운대학을 졸업하고 육해운성에서 말단 지도원으로 출발해 교통부문을 지휘하는 육해운상에 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

육해운상을 맡았다고는 하지만 북한에서 물류가 주로 철도를 통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철도상이 있는 가운데 북한 육해운상의 위상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더군다나 김 신임 총리는 북한에서 출세가도의 척도로 여겨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수행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기용과정에 물음표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총리가 정치적 배경이나 학벌보다는 실적으로 총리직에 오른 것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의 육해운성은 2005년 남포항에 수 만t급 선박 여러 척을 동시에 수리할 수 있는 령남배수리공장과 대형 컨테이너선을 댈 수 있는 부두를 완공했다.

김 위원장은 그 해 12월 이 곳을 현지지도하고 흡족함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김 신임 총리가 김정일 위원장의 눈에 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영일 신임 총리의 발탁 배경이 어디에 있든 이번 북한의 총리 교체는 앞으로 북한 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대선 앞둔 프랑스 알제리發 테러 공포

AP "다음 목표는 유럽"

북아프리카의 모로코와 알제리에서 테러 용의자 자폭과 폭탄 테러가 잇따르자 유럽, 특히 대선을 앞둔 프랑스에서 테러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프랑수아 바루앵 프랑스 내무장관은 11일 리옹 인근의 경찰 훈련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선을 앞두고 대(對) 테러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며 프랑스도 테러 행위들로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바루앵 장관은 "우리는 적색 경보 상태에 있다"며 2004년 마드리드 테러와 2005년 런던 테러를 언급, "스페인, 영국 등 다른 유럽국에서 선거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에는 4단계의 경계 태세가 있으며 적색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미국의 AP 통신은 지중해 건너편의 유럽이 이슬람 테러의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파리=연합뉴스

폐 백 이바지 전문업체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담양한과에서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재료만 선별하여 정성스런 마음을 담아 차려드립니다.

알뜰상 ₩190,000원

으뜸상 ₩330,000원

대가족상 ₩880,000원

소가족상 ₩450,000원

전통의 脈을 이어가는 담양한과

☎(061)383-8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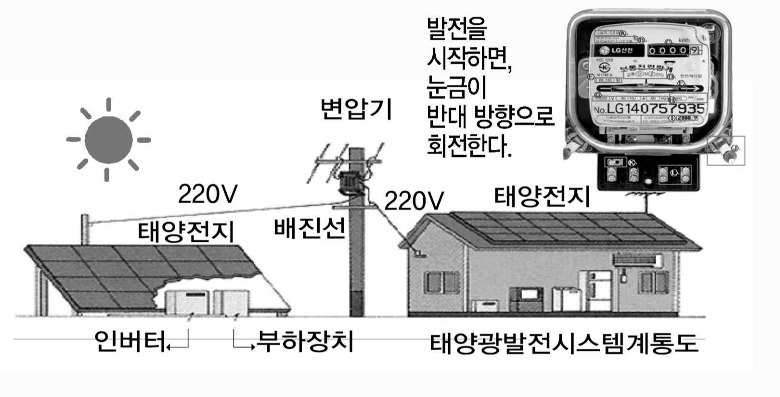
전라남도지사 품질인증업체/IS9001 인증업체

www.damyang.co.kr

직접 배송

주택 전기무료사용/전기료 누진세 해방/월 전기요금 4만원 이상 납부 주택소유자들에게 희소식!!

태양광 주택설비 소요자금 정부에서 60% 무상지원!!



태양광 설치시 전기료 무료로… 냉난방기 걱정 끝~~

태양광 주택 설비 무상지원금 신청접수

태양광 신규 보급 국가지원정책사업

무요금,무공해,무한정,무소음,무제어

1 정부 지원 태양광 주택 신청접수

정부에서는 환경친화적 무한청정 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한 주택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보급율 확대(선진국수준인 5%이상)를 위해 2007년 태양광주택보급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선정한 전문기업을 통해 신청접수하고 있습니다.

2 태양광 자가 발전시스템 무료 전기 사용

태양광 발전기란 햇빛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간편하게 설치하여 필요에 맞게 전기를 생산할수 있는 발전시스템입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전에 전기를 공급하여 1kw당 716.4원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3 정부무상 지원금 60% 전국시범주택 대상모집

정부무상보조금 60%, 전국적인 태양광 시범주택을 모집합니다

- 날짜 : 2007년 3월5일부터~(2007년 태양광발전 주택 정부지원예산내 운영으로 조기마감 예정)
- 대상 : 일반주택, 공동주택 ,공공건물, 교회 … 1년미만 신규주택 우선 순위
- 선정 : 에너지관리공단 심사

●정부 무상보조 태양광주택 사업부● 태양광 주택설치 전문기업

접수 및 상담문의 061)375-1065